

## 한훤당 김굉필 문학을 통한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 방안\*

백숙아\*\*

### 차 례

1. 시작하는 말
2. 『소학』과 현대 밥상머리교육의 연계
3. 한훤당 문학을 활용한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4.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한훤당 김굉필 문학을 통하여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애국심, 효심, 형제애, 신의 등에 대한 인식은 낮설어진지 오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되면서부터 개인주의적 정서가 더욱 팽배해졌으며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계층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소학』 교육이 당시 사회 문화 분위기와 지식인들의 도덕적 책임의식과 실천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지식인들의 교육적 소통으로서의 『소학』 교육이 사회 전반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주목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 밥상머리 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다음은 김굉필 문학을 통하여 믿음과 의리에 대한 깨우침과 그 실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굉필은 희천에서의 귀양 생활 중에 조광조를 가르쳤고 순천으로 이배하여서는 신재 최산두를 비롯한 호남의 문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수하였다. 지역을 넘나들며 인간 삶의 도리를 강조했던 김굉필 문학의 특성과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수혜를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SIA5B5A170918).

\*\* 남도인문학연구소장.

김굉필 문학은 교육적 실천과 올곧은 선비 정신으로 사회 문화 가치추구의식을 담고 있다. 이 논의를 통하여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야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간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 도모에 도움이 되는 밥상머리교육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한훤당 김굉필,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올바른 인간관 형성, 정서적 안정 도모

## 1. 시작하는 말

본 연구는 한훤당 김굉필(寒暄堂 金宏弼, 1454~1504)의 문학을 통하여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학동자로 불리었던 김굉필 문학의 교육적 의미망을 구축하고 현대적 밥상머리교육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이다.

김굉필은 의리지학(義理之學)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학문을 생활화하였다. 때문에 그의 학문은 인격형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론에 근거하였다.<sup>1)</sup> 후학들이 김굉필을 추승한 까닭은 그가 정주(程朱) 이래 성리학이 지향하는 미덕을 실천함으로써 하나의 훌륭한 인격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처신이 엄정하고 온화하여 교육에 규모가 있어 명리를 취하는 데 급급한 문예를 천박하게 여겼던 데 있다. 무엇보다 덕행을 우선하는 기풍을 진작하였다는 사실에 놓여 있었다.<sup>2)</sup>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애국심, 효심, 형제애, 신의 등에 대한 인식은 이미 낮설어 진지 오래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되면서부터 개인주의적 정서가 더욱 팽배해졌으며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계층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의 밥상머리교육부터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장도규, 「한훤당 김굉필의 도덕적 삶과 시 일고(一考)」,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10쪽.

2) 정경주, 「한훤당 김굉필 도학의 진승 양상」,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12쪽.

먼저 『소학』 교육이 당시 사회 문화 분위기와 지식인들의 도덕적 책임의식과 실천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다양한 지식인들의 교육적 소통으로서의 『소학』 교육이 사회 전반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 밥상머리 교육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다.

김굉필 문학을 통하여 믿음과 의리에 대한 깨우침과 그 실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김굉필은 회천에서의 귀양 생활 중에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가르쳤고 순천으로 이배하여서는 신재 최산두(崔山斗, 1482년~1536년)를 비롯한 남도의 문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수하였다.<sup>3)</sup> 지역을 넘나들며 인간 삶의 도리를 강조했던 김굉필 문학의 특성과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의 상관관계에 주목할 것이다.

김굉필 문학은 교육적 실천과 올곧은 선비 정신으로 사회 문화 가치추구의식을 담고 있다. 이 논의에서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야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밥상머리교육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 2. 『소학』과 현대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의 상관관계

김굉필(金宏弼)은 스승인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권유로 『소학』을 접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 21세 때 김종직을 찾아갔을 때 김종직이 지어준 시에도 드러난다.<sup>4)</sup> 김굉필은 성현의 취지와 다른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배척하였고,

3) 김굉필, <행장> 『國譯景賢錄』,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84, 26쪽.

4) 窮荒何幸遇斯人 珠貝携來爛漫陳 好去更尋韓吏部 愧余衰朽未傾困 看君詩語玉生煙 陳榻從今不更懸 莫把殷盤窮估侷 須知方寸湛天淵(궁벽한 곳에서 다행히 이런 이를 만나니 진주조개를 갖고 와 찬란히 펼쳐놓은 듯하구나. 좋게 가서 다시 韓退之를 찾아보게 노쇠하고 기울은

날마다 『소학』과 『대학』을 읽어 이로써 규모로 삼았다. 그리고 육경(六經)을 탐구하여 성(誠)과 경(敬)을 힘써 주장하여 존양과 성찰함으로서 체(體)로 삼았다. 또한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써 용(用)을 삼아 대성(大聖)의 경계(境界)에 이를 것을 목표로 삼았다.<sup>5)</sup> 그는 평생 손에서 『소학』을 놓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신을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칭하였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이 장에서 『소학』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함은 김굉필이 평생 생활의 지침서로 여겼던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내용을 삶의 실천적 중심으로 삼았을 정도로 교훈적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의 문학 속에 묻어나는 소학적 가르침에서 인간정서의 기본적 도리를 본받자는 취지이다. 다음 절에서 김굉필의 삶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소학』에 담긴 내용과 교육적 의미망을 살피도록 하겠다.

#### 1) 『소학』의 내용과 교육적 의미

『소학』은 송나라 주자(朱子)가 엮은 것이라고 써어 있으나 실은 그의 제자 유청지(劉淸之, 1139~1195)가 주희(朱熹, 1130년~1200년)의 지시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주자(朱子)<sup>6)</sup>에 의하면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된다고 비유하여 『소학』이 인간교육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였다.<sup>7)</sup> 집을 지을 때에 가장 기본은

나는 부끄러울 뿐이네. 그대 시에서는 옥에서 안개가 피어나는 듯하니 이제 진탐은 걸어들 필요 없겠네. 書傳殷盤의 어려운 뜻 궁리 말고 모름지기 마음을 맑게 지키길 바라네.) 김종직, <집필재연보> 『佔畢齋集』, 장11, 『韓國文集叢刊』 12권, 489쪽.

5) 김굉필, 위의 책, 같은 곳.

6) 주희(朱熹)는 주자(朱子), 주부자(朱夫子), 주문공(朱文公) 송태사위국문공(宋太師徽國文公)이라는 봉호로도 불린다. 자(字)는 원晦(元晦), 중회(仲晦)이다. 호는 회암(晦庵), 회옹(晦翁), 운곡노인(雲谷老人), 창주병수(滄洲病叟), 둔옹(遯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시호(諡號)는 문(文), 휘국공(徽國公)이다. 송나라 복건성 우계(尤溪)에서 출생했다. 19세에 진사가 된 후 여러 관직을 지내면서 공자, 맹자 등의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주돈이, 정호, 정이 등의 유학 사상을 이어받았다. 그는 유학을 집대성하였으며 오경의 참뜻을 밝히고 성리학(주자학)을 창시하여 완성시켰다.

<https://ko.wikipedia.org/wiki>.

터를 장만하는 것이다. 다음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잘 다듬고 기와집을 지을 것인지 초가집을 지을 것인지에 따라 재목을 마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주자는 『소학』이 교육의 근간이 됨을 집짓기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소학』의 내편은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 외편은 <가언(嘉言)>·<선행(善行)>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초기부터 『소학』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어릴 때부터 유교적 윤리관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수신서(修身書)로 장려되어, 사학(四學)·향교·서원·서당 등 당시의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 교과목으로 다루었다.<sup>8)</sup>

내편의 <입교>에서는 한자 뜻대로 인간 삶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명륜> 편은 인간관계의 방법과 개인의 도덕 실천에 대한 가르침이다. <경신>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스스로 공경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배우는 사람으로서의 몸가짐, 만물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 의복과 식사 예절 등 생활 속 예절 실천을 독려하는 교육 내용이다. <계고> 편은 앞 세 향의 실례를 소개 하며 성현들의 실천에 대해 배울 것을 권장하는 글이다. 다음에서는 『소학』의 내용과 현대적 밥상머리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 2) 『소학』<sup>9)</sup>과 현대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 (1) 『소학』이 추구하는 교육 내용

『소학』은 한훤당과 문인들의 노력으로 교육서(敎育書)로 널리 알려지게 되

7) 1187년(남송 순희 14)에 완성되었으며, 내편(內篇) 4권, 외편(外篇) 2권의 전 6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았다. 명나라 진선(陳選)의 『소학집주 小學集註』 6권을 비롯하여 명·청나라에 주석서가 많이 나왔으며,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들어와 사대부의 자체들은 8세가 되면 유학의 초보로 이를 배웠다. 『소학』은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으로서 유학교육의 입문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한국정신문화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웅진출판주식회사, 1997, 798쪽.

8) 『한국민족대백과사전』, 798쪽.

9) 이 글에서 『소학』의 내용은 다음 두 문헌을 참고하였다. 주희(朱熹)·유청지(劉淸之) 엮음, 윤호창 옮김, 『소학』, 홍익출판사, 2015; 김굉필, 위의 책, 59~160쪽.

었다.<sup>10)</sup> 『소학』 내편의 <입교>는 옛날 교육 방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지침으로 모두 13장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태교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섯 살부터 숫자 공부와 우주의 법칙을 가르치고 일곱 살부터 남녀상열지사(男女相與)를 가르친다. 열 살이 되면 외부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함께 기거하며 교육을 받는다.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상의 예의범절과 인간관계, 충·효, 예술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인간살이에 대한 기초 학문을 닦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사람살이에 필요한 예법이나 올바른 삶을 위한 교육방법과 제도 등에 대해 배운다. 조화와 질서를 교육의 본질로 삼아 가르치고 오류와 자연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

<명륜>은 부자지친(父子之親), 군신지의(君臣之義), 부부지별(夫婦之別), 장유지서(長幼之序), 봉우지교(朋友之交) 등 인륜에 대한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08장이다. 첫 번째 내용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아침문안 인사에서 시작하여 잠자리와 식사봉양까지 포함한다. 부모님 표정만 보고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섬겨야할 정도로 ‘효’에 대한 지극정성을 교육한다. 며느리로서의 역할, 제사를 지내는 일도 가르친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몸과 머리카락과 살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毀傷孝之始也),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후세에 자신의 이름을 떨쳐 세상에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임을 배운다(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부모를 모시는 다섯 가지 자세와 부모를 욕되게 하는 불효에 대하여도 가르친다.

<명륜>의 두 번째 내용은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된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적고 있다. 임금의 신하된 자는 명을 받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행동함에 있어 ‘얼굴에는 늘 공경하는 빛을 띠어야 하며 임금이 있는 정전(正殿)을 오를 때는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올라야 한다.’는 공자의 언행을 들어서 가르친다. 임금에게 하사품을 받았거나 식사를 함께 할 때 지켜야할 예절

10) 최미나, 「한훤당 김평필의 교육사상과 교육활동 연구」,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22쪽.

과 임금에게 문명할 때의 예절교육도 병행한다.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 예로서 해야 하며 신하는 임금을 섬길 때 올바른 도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 끝으로 벼슬길에 입문하고 떠남에 있어 행할 신하의 도리와 충신은 절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반드시 한 지아비만을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적고 있다.

<명륜>의 세 번째는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한 글로 구성되었다. 중매에서부터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하는 말, 혼인하여 부부로 살면서 지켜야 할 예절, 아내를 내쫓는 일곱 가지 이유(七去之惡) 등에 대한 가르침이다. 네 번째는 어른을 공경하고 공손하게 대해야 하며 아버지의 친한 벗을 대할 때에는 아버지처럼 모셔야 한다. 나보다 십 년 이상 나이 많은 이는 형처럼 섬겨야 하며 오 년 이상 나이 많은 이는 어깨를 나란히 하되 뒤쳐져서 걷는 법을 가르친다. 사양하는 예와 수업하는 자세, 손님이 왔을 때, 어른을 마주할 때와 시험할 때 등의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는 친구 간에 선을 실천하도록 충고하고 악을 멀리하도록 권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임을 가르친다. 벗을 사귀는 방법, 부모와 임금과 스승에 대한 섬김(君師父一體), 자신의 심신 돌봄, 버려서는 안 되는 것 등을 가르친다.

<경신>은 몸가짐을 삼가라는 가르침의 글로 심술지요(心術之要), 위의지칙(威儀之則), 의복지제(衣服之制), 음식지절(飲食之節) 등의 내용이다. 첫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살되 고집하지 말며 예로써 남을 대해야 함을 가르친다. 군자가 가져야 할 아홉 가지 생각과 군자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를 지키되 몸을 수양하고 말을 실천해야 함을 교육한다. 두 번째는 몸가짐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이다. 사람다운 사람 되는 길과 풍모와 행동거지, 자세, 말과 모습, 시선, 상중(喪中)인 사람에게 대한 예절, 잠잘 때, 물건을 줄 때, 쾌옥에 대해, 활쏘기와 덕, 집안에 있을 때 등에 대한 가르침이다. 세 번째는 성인식 때 옷차림, 의식에 따른 군자의 옷차림과 빗갈, 어린아이의 옷과 도에 뜻을 둔 선비의 옷차림에 대한 교육이다. 네 번째는 음식을 배불리 먹지 말아야 하며 군자와의 식사와 공자의 식생활과 술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는 글이다.

<계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입교>, <명륜>, <경신> 등의 내용에 대한 성현들의 삶을 실례로 들어 실천할 것을 권장하는 가르침이다. 문왕(발해 제3대 왕, 737~793 재위) 어머니의 태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공자와 증자의 자녀교육, 순임금의 가족애, 노래자의 재롱(老萊之戲), 은나라의 세 현인에 대한 이야기 등 앞 편에서 다룬 가르침의 말을 강조한 것이다.

『소학』 외편의 <가언>은 사전적인 의미로 본받을 만한 좋은 말이라는 뜻이다. 현대 이후부터 송대에 이르기까지 현인들의 말을 기술하고 있다. ‘교육의 길’, ‘인간의 길’, ‘수양의 길’ 등 세 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내편의 <입교>, <명륜>, <경신> 등의 내용을 확충하여 91장으로 적고 있다. <경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비의 책임을 논하였다. 특히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라, 생활의 열네 가지 지침, 자신을 경애하는 열네 가지, 학문을 하는 이유, 경전을 읽는 법, 공부하는 법 등을 적은 가르침의 말들이다. <선행>은 착한 행동을 말한다. 이 편은 현대 이후의 현자들의 선한 행실을 수록한 것이다. <입교>, <명륜>, <경신>의 가르침을 실증한 글이다. 잡스런 욕망 버리기, 탐욕과 권력이 욕망을 부르는 법, 엄격함과 온화함을 겸비, 일상에서의 공부 등을 실증적 가르침으로 적은 것이다.

이상으로 『소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내편은 교육의 길, 인간의 길, 수양의 길, 고대의 도 등 경전들을 통해 서술하였음을 살필 수 있었다. 외편은 착한 행동, 아름다운 말씨 등은 한 대 이후 성현들의 행적을 통하여 검증하고 실천적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됨을 파악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르침의 내용도 보인다. 특히 ‘남녀차별’, ‘장남중심’ 등을 강조하여 사대부 위주의 정서가 팽배했던 사회 현상은 현대인들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 (2) 현대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중국의 동쪽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예를 중시하는 나라임을 일컫는 말이다. 조

선시대의 정신사적인 부분을 지배했던 유교사상은 밥상머리 문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예절의 기본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밥상머리란 사람들이 밥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전 가정에서의 밥상머리교육은 첫째, 가장 어른인 사람이 수저를 들고 먼저 식사를 시작해야 아이들이 차례로 밥을 먹는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장유유서(長幼有序)를 익히고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둘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말을 전한다. 셋째, 식사 중에 어른들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한 후에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청소년기는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 말이 끝나기를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예법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내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익히게 된다. 네 번째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는 것이다. 쌀 한 톨이 생산되기까지 팔십 번 이상 농부의 손길을 거친다고 한다. 그래서 밥알을 버리는 죄가 가장 큰 거라며 남은 밥알을 모아서 누룽지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미리 적당 양을 덜어서 먹고 음식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를 통하여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농사짓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며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다.

현대 밥상머리교육은 어떠한가? 대부분의 부모는 맞벌이로 바쁜 시간 때문에 가족들과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기 힘들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슨 밥상머리교육이냐고 할 수 있다. 2015년도부터 5년여 년 동안 본 연구자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통하여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의 방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소학』을 통한 예절교육 보급을 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한 곳을 정하여 재능기부를 시작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편부모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야간 시간에 일하는 추세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는 새벽녘에 퇴근하고 초저녁 잠잘 시간에 출근한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소통은커녕 함께 밥 먹는 시간도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이다. 아이들은 저녁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한다. 5시부터 6시까지 재능기부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밥상머리에 마주할 기회가 많다.

연구자가 찾은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가끔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기도를 한 후 밥을 먹는다. 밥상머리에서 식사 당번 선생님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맛있게 먹자’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의 수저질도 바빠진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아이들에게 식사예절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센터에서 저녁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음식을 준비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맛있게 밥을 먹는다. 물질만능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음식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밥상머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 신분으로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는 청소년들의 밥상머리를 들여다보았다.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직접 아이들 틈에 끼어서 점심 식사를 해봤다. 일단 줄을 서서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점, 식판을 들고 급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혹은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 후 배식을 받아먹는 점, 집에서보다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밥을 먹게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긴 줄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대 청소년 밥상머리 문화는 제도화 속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이 밥상머리에서 충·효(忠·孝)를 논하고 장유유서(長幼有序)를 논할 수 있는 문화는 보기 힘든 사회이다. 이들에게 충·효의 단어는 더 낯설다. 특히 임금을 부모처럼 섬기던 조선시대의 충·효 사상을 현대에서 가르친다면 꼰대선생으로 주목 받을 일이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했던 조선시대 밥상머리교육은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먹히지 않는 문화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입시의 지옥으로 내몰린다. 가

정교육이나 교우관계 등에 대한 자각은 이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 해볼 때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상머리교육이 가능하거나 할 일인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볼 일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을 방임할 수는 없다. 이 논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소학』을 삶의 근원으로 삼아 생활 속에서 도(道)로 실천하였 던 김굉필 문학을 통하여 찾으려고 한다. 다음 장에서는 김굉필 문학을 통한 현대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 3. 한훤당 문학을 활용한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 1) 자아정체성 탐구

선비는 지조(志操)의 표상이다. 지조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sup>11)</sup> 자신을 ‘소학동자’라고 칭했던 만큼 김굉필은 『소학』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 그는 스승인 김종직에게 전수 받은 소학적 앞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천에 옮기는 일에 주력하였다. 그의 문학은 문학성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도학적 깨달음과 실천을 중요시한 점이 특징이다. 평생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며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인간 삶의 기본에 충실했다. 김굉필이 『소학』에 심취했던 원인도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교육적 철학과 바람을 가장 잘 나타낸 <讀小學><sup>12)</sup>을 살펴보자.

業文猶未諳天機	글을 배웠음에도 오히려 천기(天機) <sup>13)</sup> 를 몰랐는데
小學書中悟昨非	소학 가운데 글에서 지난 잘못 깨달았네.

11) 이구의, 「한훤당 김굉필의 시에 나타난 자아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42쪽.

12) 김굉필, 위의 책, 37쪽.

13) 천기(天機):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이나 대자연의 비밀, 또는 신비함을 이른다.

이 시는 <讀小學>의 기구와 승구이다. 『소학』을 읽고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음을 읊었다. 『소학』의 내용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정신사적 철학을 선도한 오류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그 중에서 으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다. 부모에게 효도란 천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소학』을 읽으면서 자신이 지난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공부를 한 후 깨우치기만 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화자는 지금 부더라도 효도를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인간 본연의 행동도 하지 못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은 허황된 꿈이라는 점을 읊은 것이다.

이 시를 활용하여 ‘자아정체성 탐구’와 ‘효(孝)에 대한 자각’에 대해 밥상머리교육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두 가지의 과제를 <讀小學>과 연계하여 어떤 방법으로 현대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으로 진행할 것인지가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讀小學>의 기구와 승구에 나온 중요한 한자 의미를 찾고 함께 노래로 읊어보게 한다. 문학작품에서 말하는 소학적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우치는 과정이다. 아이들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면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자아정체성 탐구 활동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한 면이 있다. 조금만 친해지면 수업이 한결 수월하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만남에 대한 실례로 들어 과제를 해결해보기로 한다. 밥상머리 대화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자아정체성도표’를 작성하여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되도록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작성하게 한다. 이 활동은 처음 만나는 학생들이 첫 대면을 했을 때 서로를 터놓고 가까워지게 하는 준비과정이기도 하다. ‘자아정체성 탐구’ 활동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다. 청소년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은 다음 네 가지이며 표를 만들어 설명할 수 있다.

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래 모습 관찰하기

나. 현재의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나의 장점 찾기

다. 미래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의 소망과 이상 떠올리기  
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나의 도덕성과 가치관 연상하기

이 활동의 최종 목표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다. 밥상을 펴고 준비하는 과정을 청소년들이 도우는 시간부터 자연스럽게 ‘자아정체성도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하루 일과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학생들은 조목조목 자신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청소년들이 눈 뜨고 생활하는 동안 부모님 부재인 상황이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과의 일상적인 생활이 고픈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며 점심은 학교에서 저녁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해결한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지역아동센터 생활에 적응하는 편이다. 어쩌다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싸움을 한다거나 따돌림 시키는 분위기는 파악되지 않는다.

밥상이 차려지면 학생들은 먹기에 바빠 다른 이야기로 끼어들 틈이 없다. 식사 중간쯤 빨리 떨어진 반찬을 채워주면서 다시 대화를 유도한다. 한 번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식사 중에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놓지 않는다. 부모님의 부재와 형제자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거리낌 없이 풀어놓는다. 그들은 스스로의 자아에 대하여 자각할 줄은 몰라도 이야기로 털어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식사를 마친 후에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 위에 놓인 빈 그릇들을 치우고 과일과 차가 준비된 밥상머리로 모여든다.

‘자아정체성 탐구’에 대한 마무리 대화를 할 시간이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하여 스스로의 답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치 않을 자신만의 이미지를 떠올렸는지에 대하여 말해보게 한다. 학생들이 ‘자아정체성도표’ 작성을 해보았고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나누는 후라서 자연스럽게 말문을 연다. 지금까지 무작정 공부를 했는데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나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가?’, ‘세상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나의 꿈은 무엇이며 계속 같은 꿈을 꾸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붓물처럼 터져 나온다. 어떤 학생은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상관하지 않고 서로 웃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이처럼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讀小學>에서 화자가 『소학』을 탐독한 후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은 청소년기 아이들의 밥상머리교육 활동에 활용하기 좋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탐구한 자신의 정체성 이미지를 떠올리며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외쳐보게 한다. 어느 때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자신만의 정체성 이미지를 잊지 말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권장한다. <讀小學>의 기구와 승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파악하여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훈적인 시이다. 청소년들에게 <讀小學>을 다시 설명하고 함께 노래로 읊어본다. ‘자아정체성 탐구’ 활동으로 왜 이 시를 선택하였는지를 말하고 첫 번째 밥상머리교육 활동을 마무리한다.

## 2) 효(孝)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

<讀小學>의 전구와 결구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효(孝)를 깨닫고 실천하는 법에 대해 배우는 밥상머리교육 두 번째 활동이다. 학생들이 밥상머리에 마주하기 전에 한 시간 동안 <讀小學>을 『소학』 내편 <명륜>내용과 연계하여 밥상머리교육 활동을 한다.

從此盡心供子職	이제부터 정성을 다해 자식도리 다해보리니
區區何用羨輕肥	구구하게 어찌 부귀영화 부러워하라.

이 시는 <讀小學>의 전구와 결구이다. 여기에서 화자는 ‘이제부터 정성을 다해 자식도리 다해보리니(從此盡心供子職)’라며 부모님께 정성으로 자식 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보인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없다는

뜻으로 ‘구구하게 어찌 부귀영화 부러워하라(區區何用羨輕肥)’라고 읊었다. 사람이 평생 못 다할 일 중에서 가장 후회스러움을 남기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다. 내일부터 또 내년부터 하다 보면 어느새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나 버린다.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자식 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화자의 심경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소학』의 <명륜>은 인간의 올바른 길 안내를 위한 가르침이다. ‘아침저녁 문안인사’, ‘잠자리와 식사 봉양’, ‘부모가 원하지 않는 일 삼가’, ‘부모의 뜻’, ‘부모가 병환’, ‘부모를 모시는 다섯 가지 자세’, ‘부모를 욕되게 하는 불효’ 등 일곱 가지에 치중하여 교육한다. 이와 연계하여 학생들은 <讀小學>의 전구와 결구 한자 풀이와 의미 분석을 하고 노래로 읊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이 한시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은 노래로 읊으면서 어려운 한자 공부라는 생각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은 본문 내용을 노래하면서 노트에 적어보기도 하고 외우기도 한다. 어떤 학생은 본문을 외워 읊은 후 해석까지 능숙하게 해낸다, 반면에 서투른 아이들도 발생한다. 이때 가르치는 입장에서 당황하거나 비교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밥상머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나이, 성별, 가족 사항 등 서로 다른 입장이 있어서 예민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라서 더 예민한 때이기도 하지만 생활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학생들과 만나야 한다. 학생들에게 한시를 통한 밥상머리교육은 부담감이 큰 편이긴 하나 대부분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분위기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기 전에 인사법<sup>14)</sup>을 가르친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

14) 여자 큰절하는 방법: 첫째, 공수를 하고 어른을 향해 선다. 둘째, 공수한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고 시선은 손등을 향한다. 셋째,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깊게 내려앉는다. 넷째, 상체를 45도 굽혀 잠시 머물렀다가 윗몸을 일으킨다. 다섯째, 오른쪽 무릎부터 짚고 일어나 두 발을 모아 서서 가볍게 목례한다.

남자 큰절하는 방법: 남자는 손과 발을 여자 큰절과 반대로 었는다. 첫째, 공수를 할 때 손은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는다. 둘째,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리면서 몸을 굽힌다. 셋째,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무릎을 꿇는다. 넷째, 엉덩이를 깊이 앉아 팔꿈치를 땅에 붙이고 이마를 손등 가까이에 댄다. 다섯째, 오른쪽 무릎부터 짚고 일어난 뒤, 공수

분 온돌방 형식의 교실 형태라서 큰절 가르치기에 적격하다. 온돌방으로 설계한 이유는 아이들이 저녁 시간까지 센터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집처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의자에 앉아서나 서서 인사하는 법을 가르친다. 이 교육은 일반 인사법보다 공수를 하고 마음을 모아 공손하게 절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해질 것이라는 바람에서이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저녁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준 선생님에게 인사법부터 공손하게 바뀌니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진다. 서로서로 밥상을 차리는 일도와 맛깔스런 음식들이 차려졌다. 마침 목사님이 참여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식사를 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수저를 먼저 든 후에 식사를 시작한다. 식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맘에 대하여 화제를 꺼낸다. ‘자신이 건강하게 자라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준 사람은 누구일까?’ 눈치 빠른 한 학생이 ‘부모님이요’라며 소리친다. 식사 시간 내내 부모님 은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학생들은 식사 직전에 배운 『소학』의 일곱 가지 효도법과 김굉필의 <讀小學>에서 배운 효도의 실천에 대하여 퀴즈식으로 서로 간에 소통하며 식사를 마친다.

학생들은 먹은 음식그릇을 치우고 밥상머리에 다시 둘러앉아 다과를 시작한다. 한 학생이 인절미가 후식으로 나오니까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한다. 편부모 가정 학생이 할머니를 엄마삼아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 할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보고 무심코 던진 말이다. 이 말 속에는 인절미를 할머니에게 가져다주고 싶은 마음이 숨어있다. 선생님들에게 먹으라고 따로 한 접시 내어준 인절미를 봉지에 싸서 할머니에게 가져다드리라고 전한다. 이러한 과정이 사소한 일 같지만 학생들에게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가르침을 체험하게 해주는 시간이다. <讀小學>의 내용과 관련하여 효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한시에 담긴 의미를 새기며 노래로 읊고 자리를 파한다.

한 손을 다시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린 뒤 묵례한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

3) 믿음과 의리 정신 고취

『소학』을 평생 삶의 지렛대로 삼고 실천했던 김굉필은 신의와 아름다운 언행을 중시했다. 그는 아무리 힘들고 꺾박 받는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학문을 익히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데까지 연결하여 생활규범으로 삼았던 사람이다. 그의 도학적 실천 정신은 반우형(潘佑亨)이 가르침을 청했을 때 써준 『寒氷戒』<sup>15)</sup>에서도 자세히 드러난다. 다음에서는 인간 된 자로서 신의와 의로움에 의미를 둔 김굉필 시를 밥상머리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一老蒼髯任路塵	늙고 푸른 소나무 하나 길의 먼지 덮어쓰고
勞勞迎送往來賓	수고로이 오가는 빈객들 맞이하네.
歲寒與汝同心事	추운 겨울에도 너처럼 늘 같은 마음가짐
經過人中見幾人	지나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보았느냐

이 시는 아무리 힘들어도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일이 없는 화자 자신을 길가에 서있는 소나무에 비유하여 읊은 <路傍松><sup>16)</sup>이다. 오랜 동안 길 가에서 길에 훔날리는 먼지를 다 덮어쓰고도 푸른빛을 잃지 않은 소나무는 믿음과 의리를 상징하는 소재로 등장했다. 현대사회에서 ‘믿음과 의리’란 말은 생소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자본주의로 인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다. 화자는 오랜 세월 동안 길을 오가는 사람들과 마주했을 소나무를 의인화하여 너처럼 한 마음으로 변함없는 사람이 있더냐고 물었다. 화자는 늘 의리를 지키며 믿음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원한다. 소나무는

15) 『한빙계』는 반우형이 김굉필을 스승으로 모시려 하자, 이미 현실을 떠난 지 오래라며 둘러보낸 후 자신을 수양하며 사물에 대응하는 방법 몇 조항을 손수 써서, 제목을 붙여 떠나는 그에게 주면서 스스로도 경계하러 한다고 했다(그 내용은 動靜有常, 正心率性, 正冠危坐, 深斥仙佛, 痛絕舊習, 室慾懲忿, 知命敦仁, 安貧守分, 去奢從儉, 日新工夫, 讀書窮理, 不忘言, 主一不二, 克念克動, 知言, 知機, 愼終如始, 持敬存誠 등이다.) 김굉필, 『景賢附錄』上, <寒氷戒>.

16) 김굉필, 위의 책, 44쪽.

사군자(四君子) 중 하나로 선비의 변함없는 지조를 가리킬 때 등장하는 소재이다. 화자는 ‘의(義)’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입장이었고 당시 쇠퇴해가는 지점에서 현실을 풍자한 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품은 그의 스승처럼 섬겼던 김맹성(金孟性, 1437~1487)<sup>17)</sup>과 주고 받은 시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음 시는 환훤당이 지지당의 귀양지였던 고령에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 그 아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欲躡先生道德藩	선생의 도덕 울타리 엿보고 싶어서
爲尋椰水水西村	야천(椰川)의 서쪽 마을을 찾아 갔네.
閑中恨久嘶風馬	마구간의 바람에 말 울음소리 <sup>18)</sup> 들리지 않고
門外驚留嘯月猿	문밖엔 달 아래 우는 원숭이만 남았구나.
凍雨過來聞兩部	첫봄 비 온 뒤에 개구리 소리(兩部) <sup>19)</sup> 들려오고
長江吞去露孤根	긴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외로운 나무뿌리
彷徨不得承顏采	이리저리 방황하며 님의 얼굴 볼 수 없어
惘惘悠悠正斷魂	멍하니 아득한 맘에 애만 끊어지는 듯하네.

이 시는 김굉필이 스승인 김맹성에게 지어서 준 7언 율시 <上止止堂><sup>20)</sup>이다. 화자는 지지당에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떻게 지내는데 대한 안부와 은혜에 감사하는 편지글<sup>21)</sup>을 함께 써서 보냈다. 화자는 인간의 길인 올바른 행

17) 김맹성(金孟性)의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자는 선원(善源)이며 호는 지지당(止止堂)이다. 한성부(漢城府) 계방(桂坊)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김준례(金遵禮)이다.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자질이 총명하여 스승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1476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간원의 헌납과 정언을 지내면서 소임을 다하였다. 1478년 도승지 임사홍(任士洪)과 함께 현석규(玄錫圭)를 탄핵한 죄로 고령에 유배되었다가 1482년 풀려났다. 저서로 『지지당시집(止止堂詩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권, 66쪽.

18) 시풍마(嘶風馬): 옛글에 ‘준마(駿馬)가 바람에 운다.’라는 말이 있다. 각주 12)와 같은 곳.  
19) 양부(兩部): 개구리 울음소리를 비유한 말이다. 남제(南齊)의 공치규(孔稚珪)가 마당에 풀을 깔지 않아 그 속에서 우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양부가 연주하는 음악에 비유했다는 <남사 공규전(南史孔珪傳)>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고취는 높은 관리가 나타날 때 북과 피리를 부는 것을 말한다. 각주 12)와 같은 곳.

20) 김굉필, 위의 책, 45쪽.

21)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날이 새로워지시기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굉필

동과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심정으로 지지당을 찾았다. 마구간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사람 인기척이 없다는 뜻이다. 먼 길을 재촉하여 스승이 보고 싶어 왔으나 달밤에 원숭이 울음소리<sup>22)</sup>만 들린다. 이른 봄날 비가 온 뒤에 청명하게 들리는 개구리 소리가 정겹다. 저녁 시간에 도착한 화자에게 원숭이 울음소리와 개구리 소리는 유독 쓸쓸하고 황량함이 크게 느껴짐을 읊었다.

‘나무뿌리가 드러났다’는 표현에서 비의 양이 많아 강물이 차올랐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지지당에 대한 그리움과 허탈함이 그대로 묻어난 시적 소재들을 끌어왔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인기척이 없는 집은 비어 있는 지 이미 오래임을 알 수 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찾아보았지만 애가 끊어질 듯 마음만 처량하여 멍해진 상황이다.

數間茅屋竹爲藩	두어 칸 초가집에 대나무로 된 울타리
籬下清江曲抱村	울밑으로 푸른 강물 마을 안고 휘돈다.
庭樹半陰減宿霧	뜰 앞에 나무 그늘에 안개 잠기고
山禽盡日和啼猿	산새는 종일 원숭이 울음에 화답하네.
嗟余敢擬居仁宅	내 감히 인의 집에 사는 것(居仁宅)에 비할까

은 염려해주신 덕택으로 지금도 예전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 그리 아십시오. 제가 전날 찾아뵈러 갔다가 못 뵈고 돌아온 회포를 적어 근체시(近體詩) 한 수를 지어 올리니 한 번 보시고 화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뵈 날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삼가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절하며 화답을 드립니다(時值溽暑 未暗履況何似 日新仰睇仰睇 專承尊賜 只今依舊度日 伏惟鑑亮此中 述前日爲進不利之懷 賦近體一首錄似 伏冀一察和教 米粒拜縑 伏祝勤靜萬福 謹拜復). 김굉필, 위의 책, 45~46쪽.

22) 원숭이는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지만 우리민족은 일찍부터 원숭이를 키웠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원숭이를 놀려 나무에 오르게 하는 장면이 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차돈이 순교한 뒤 원숭이가 떼어 지어 울었다고 한다. 고려 문인 이인로는 파한집에 지팡이를 짚고 청학동 찾아 나서는데 첩첩 산중에 원숭이 울음소리뿐이라는 시구를 남겼다. 송정은의 악현집에는 조선 전기 문인 최수성이 원숭이를 길러 편지를 전하는데 썼다는 기록이 보인다. 원숭이는 외교선물로 이땅에 들어왔다. 동물은 국가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수단이었다. 조선은 명나라에 매와 사냥개를 보냈다. 반대로 조선은 명나라와 일본에서 원숭이를 받았다. 원숭이는 사복시 관원이 키웠다. 태종때 원숭이 수가 늘어 궁 밖으로 분양했다.

<매일주요뉴스와 인문학>, <https://ybeal2.tistory.com>.

待子須同討義根	그대 기다려 의리의 근본 토론하러네.
此外休言都省事	이밖에 하릴없다 말하지 말소
無邊光景攬詩魂	끝없는 풍경이 시인의 넋 흔들어주네.

이 시는 지지당이 한훤당의 시에 화답하는 시로 보낸 <和><sup>23)</sup>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대나무 울타리를 두른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는 화자는 울 아래 마을을 안고 휘도는 강물을 음미하며 시문(詩文)을 열었다. 뜰 앞의 나무 그늘에 안개가 잠기었다는 표현에서 고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산새와 원숭이가 울음으로 화답하는 이곳이야말로 ‘거인택(居仁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공자는 ‘인(仁)한 마음의 집’, 맹자는 ‘인(仁)을 편안한 집’ 등으로 ‘거인택(居仁宅)’을 말했다(각주 19번 참조). 이는 인(仁)한 자만이 평안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지지당은 스스로 인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인자인 한훤당과 의리와 근본을 토론하고 싶어 한다. 화자는 이밖에도 풍광 좋은 곳에서 시인의 넋을 달래주고 싶은 심경을 토로한다.

김굉필 문학작품을 토대로 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믿음과 의리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학생들에게 한자(漢字) 한 글자마다 가지는 뜻을 휴대폰을 활용하여 찾아보게 하고 각 행의 뜻을 나름으로 정리해보도록 하였다. 한자 학습을 2년 이상 했던 학생들이 다반수라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빨리 찾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각 행이 가지는 의미를 맞든 아니든 자신감 있게 말한다. 끝까지 찾지 못하는 학생들은 저학년이라도 우미 선생님들이 함께 한자의 뜻을 찾아주기도 한다. 한자의 의미를 찾을 때에는 해자(解字)를 하여 한 글자씩 뜻을 완성시키는 데 묘미를 느끼고 한시를 통한 밥상머리교육에 흥미를 갖도록 한다.

다음은 학생들이 우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믿음과 의리에 대한 뜻을 찾아보게 한다. 학생들은 뜻을 찾자마자 시키지 않아도 서로 발표를 하겠다며 큰 소리로 뜻을 말한다. 학생들의 발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시 내용과 비유

23) 김굉필, 위의 책, 47쪽.

하여 자세히 설명해준다. <路傍松>의 ‘一老蒼髯任路塵(늙고 푸른 소나무 하나 길의 먼지 덮어쓰고)’와 ‘歲寒與汝同心事(추운 겨울에도 너처럼 늘 같은 마음 가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늘 변함없이 사철 푸른빛을 띠는 소나무를 왜 믿음과 의리에 비유하는지 사군자(四君子)와 연계하여 설명한다.

김굉필이 지은 <上止止堂>의 ‘선생의 도덕 울타리 엿보고 싶어서(欲瞰先生道德藩)’에 대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설명해준다. 지지당이 화답으로 지은 <和>의 ‘내 감히 인의 집에 사는 것(居仁宅)에 비할까(嗟余敢擬居仁宅)’, ‘그대 기다려 의리의 근본 토론이나 하려네(待子須同討義根)’ 등의 의미를 되새기며 속뜻을 같이 알아본다. 자신이 친구들에게 믿음과 의리로 대하는지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발표 후에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은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며 의리가 있다고 말한다. 수업이 끝나면 저녁 식사 시간이다.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밥상머리에 앉는다.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식사를 시작한다. 선생님들이 먼저 수저 들기를 기다렸다가 학생들도 수저를 들고 음식을 먹는다. 선생님들이 식사 직전에 배운 믿음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반찬으로 꺼낸다. 밥상 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이 나왔다. 이전엔 서로 먹으려고 젓가락이 접시를 두들겼지만 차분하게 친구들에게 배려해가면서 먹는다. 밥상머리교육의 효과가 밥상에서 드러나는 시점이다. 참여한 청소년 모두가 수업 때 배운 대로 밥상머리예절을 지키고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양보하는 모습에서 교육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학생들과 다과상에 둘러앉아 <路傍松>, <上止止堂>, <和> 등의 세 작품을 함께 낭송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진다. 김굉필의 실천적 삶과 문학작품의 교훈을 기억하고 늘 생활의 지표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깜짝 퀴즈대회를 제안한다.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문제를 말하자 호기심에 귀를 기울인다. 선생님들은 다음 세 가지 질문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첫째, 김굉필 선생님 삶의 철학은 무엇인가? 둘째, 김굉필 선생님은 어떤 책을 평

생 읽고 깨우침을 얻어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살았는가? 셋째, 광양에도 김굉필 선생님의 제자가 있었다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는가? 등 세 가지 문제이다. 학생들 모두 세 번째 문제는 쉽게 맞추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어려웠다.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힌트를 말해주어 궁급증을 해소해준다. 끝으로 준비한 학용품을 선물로 나누어주고 밥상머리교육 활동을 종료한다.

김굉필 문학을 통한 밥상머리교육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기 절제와 나눔, 배려와 소통 등을 깨우쳐주고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필요한 인성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교육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주입식 교육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교사가 떠먹여주는 밥술가락을 받아먹기만 하면 되었다. 밥상머리교육은 서로의 감성을 눈으로 읽고 마음을 나누면서 신뢰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과정을 깨우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접하는 밥상머리교육은 사물의 이치와 인간 심성을 깨우치고 실천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한훤당 김굉필 문학작품을 활용한 청소년 밥상머리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밥상머리교육은 교실에서 이론을 강의할 때보다 교육적 효과가 배가됨을 확인하였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서로 눈을 마주치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가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첫째, 『소학』과 현대 밥상머리교육의 연계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소학』 교육이 당시 사회 문화 분위기와 지식인들의 도덕적 책임의식과 실천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대밥상머리교육과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이다. 더불어 당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교육적 소통으로서의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인간교육의 바탕이 됨을 파악하

였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소학』을 배운 후 실제 밥상머리에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는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 김굉필은 자신을 ‘소학동자’라고 칭했을 정도로 학문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평생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의 문학적 또한 올바른 인간 삶과 실천 정신을 담고 있음을 실제 밥상머리교육 활동을 통하여 밝혔다. 이를 통하여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소통과 삶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김굉필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학문적 혹은 사회적으로 활용 가치에 대하여 밥상머리교육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그의 문학 작품은 청소년들의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란 점에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의 한시가 단순한 문학작품으로 그치지 않고 선비 문화의 정의 실현에 부딪들 역할을 한 점과 당대 교육적 사회 문화 분위기를 이끌어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으로의 새로운 발상 전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景賢錄』

『佔畢齋集』

김굉필, 『景賢附錄』上, <寒氷戒>.

——, <행장> 『國譯景賢錄』,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84.

김종직, <점필재연보> 『佔畢齋集』, 장11, 『韓國文集叢刊』 12권.

이구의, 「한훤당 김굉필의 시에 나타난 자아의식」,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장도규, 「한훤당 김굉필의 도덕적 삶과 시 일고(一考)」, 『한국한국정신문화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웅진출판주식회사, 1997.

『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9.

정경주, 「한훤당 김굉필 도학의 전승 양상」,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정출현, 「한훤당 김굉필의 사제·사우관계와 학문세계의 여정」, 『민족문화』, 한국고전번역원, 2015.

주희(朱熹)·유청지(劉淸之) 엮음, 윤호창 옮김, 『소학』, 홍익출판사, 2015.

최미나, 「한훤당 김굉필의 교육사상과 교육활동 연구」, 경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https://ko.wikipedia.org/wiki>

<https://100.daum.net/encyclopedia>

<https://ybeal2.tistory.com>

| Abstract |

## A Strategy to Activate Dining Table Talk Education for Adolescents through Hanhwondang Kim Gweing-pil's Literature

Baek, Suk-ah

Director of the Namdojin literature Institute

This study discussed a strategy to activate dining table talk education for adolescents through Hanhwondang Kim Gweing-pil's literatur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recognition of patriotism, filial piety, brotherly love, and faithfulness in Korean moder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has long since become unfamiliar.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dividualistic sentiments have become more prevalent, and social class conflict is deepening due to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is is a problem to be seriously considered as an intellectual living in the modern age.

To solve this problem, first, this study discussed how the "Sohak" education affected the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and the moral responsibility and practice consciousness of intellectuals at the time. Considering the social atmosphere at the time, attention was paid to the role of "Sohak" education as an educational communication between various intellectuals in society as a whole. It is a discussion about how these discussions can be connected with dining table talk education for adolescents living in the 21st century, and what meanings can be given.

Next, through Kim Gweing-pil's literature, the enlightenment and practice of faith and loyalty were discussed. Kim Gweing-pil taught Cho Gwang-jo during his exile in Heecheon, and when he moved to Suncheon, his exile place, he passed on many teachings to the literati of Honam, including Sinjae Choi San-du.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Kim Gweing-pil's literature, which emphasized the principle of human life across regions, and the dining table talk education for adolescents.

Kim Gweing-pil's literature contains a sense of social and cultural value pursuit through educational practice and upright scholarly spirit. Through this discussion, it is expected that dining table talk education, which helps adolescents who have to live a harsh reality, form the right human view and promote emotional stability, will spread.

**Key words** : Hanhwondang Kim Gweing-pil, dining table talk education for adolescents, forming the right human view, promoting emotional stability.